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국립목포대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초청 포럼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5극3특 연합체…광주·전남 집중 지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전남도·목포대 초청 포럼

정부 성장전략 지역민 공감대·지역 대응 전략 모색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9일 “광주전남을 (5극3특 성공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국립목포대학교는 9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김경수 위원장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전남의 균형성장 전략 등 전남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에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을 주도할 김경수 위원장의 정책 강연을

들기 위해 이상의 함평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기업 대표, 청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5극3특 성장 전략은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역을 살려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생존 전략”이라며 “먼저 혁신하고 앞서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지역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광주전남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속도를 내서 지역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어간 데 이어 현장에서 5극3특, 전남 발전 방안, 대학 성장 및 청년 문제 등에 대해 지역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5극3특과 관련해 “그동안 모서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신념을 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거론해 참모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을 마련해 해당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육성할 대학을 조성하고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묶어 발전시켜 나갈 방안들이 역점과제로 만들어져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5극3특 균형성장전략에 따라 연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권이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고, 전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세계양궁대회 연계 ‘시티투어’ 운영

광주시, DRT버스도…4개 국어 관광가이드북 배포

광주시가 ‘2025 현대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기간 국내외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 시내와 근교를 둘러볼 수 있는 ‘호스트 시티 투어’(Host City Tour)를 운영한다.

시내 코스는 전일빌딩 245~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충장로~양림동, 근교 투어는 국립 5·18 민주 묘지~담양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창평마을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풍부한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 방문객들이 광주와 인근 지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대회 기간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는 ‘광주 투어버스’ 앱을 통해 지정된 13개 구역 내 원하는 정류장과 목적지를 입력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환승 지원과 1회권·24시간권 등 요금제를 적용해 이용 편리성을 강화했다.

광주 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다국어 안내, 관광·숙박·맛집 정보 제공, 현장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영·중·일 4개 언어로 제작된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도 배포해 참가자와 관광객이 최신 관광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선수단이 9일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가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삼석,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종합 대책 필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

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48%)에 비해 7%p



늘어난 수치로,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농어촌 빈집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농어촌기본소득 성공 정착 추진

이규현 도의원, 정부 책임 강화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원을 반영해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원으로는 정책 효과마저 제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이현규 기자

‘전남도민 존중받는 평등 사회’ 실현 다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려…‘평등 6계명’ 발표도

전남도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별을 넘어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평등 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5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차별 없는 전남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청, 여성단체,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 실현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9월 1~7일 지정된 기간이다. 올해 전남도 행사는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남도’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해남 계곡초 ‘별나루 타악양상탈춤’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42명 표창, 연극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차이를 넘어, 함께’ 공연, 평등 실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여권통문 설치와 해설, 포토존, 체험존 등을 마련해 일

상속 평등을 다질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등 6계명’을 발표하며 생활 속 성평등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평등 6계명은 △일·삶 균형을 지지하는 일터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도전 △돌봄의 공동 책임 △세대·성별을 넘어선 존중과 소통 △경력단절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 △안전하고 동등한 일상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전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수를 초청해 ‘삶의 주인공을 위한 3가지 보물’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양성평등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토대이자 전남의 미래를 여는 힘”이라며 “평등이 곧 전남의 힘”이라는 신념으로 도민 모두가 능력과 개성을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림 기자 holbul@n.com

상사와 랑 머물고!
상사랑 랑 짝go!

제25회 영광 불갑사

상사랑 축제

2025. 9. 26. (금) ~ 10. 5. 일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묘법) **9. 26(금) 오후 7시**
- ‘그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 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레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영 광 군
영 광 군 의 회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병 국**
한수원주한빛발전소본부 **본부장** **김 성 면**
영 광 산 림 조 합 **조합장** **정 태 범**

주최/주관 : 영광불갑사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신성중앙회 농림영광농자부 동진 한진(주) 카톨릭대학